

학대와 따돌림이 청소년기 우울과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 : 성별 차이를 중심으로*

정익중** · 이지언***

초 록

학대와 따돌림 피해와 관련하여 청소년이 경험하는 부정적 반응 중 대표적인 것은 우울과 공격성이다. 이러한 우울과 공격성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학대와 따돌림의 경로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의 매개효과를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이러한 경로가 성별에 따라 다를 수 있음에 주목하여 학업성취와 문제해결능력 등의 매개변수를 투입한 우울과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모형에서 성별 차이를 검증해 보았다. 한국아동청소년종합실태조사 자료와 구조방정식모형을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학업성취와 문제해결능력은 경로모형에서 부분 매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중집단 분석결과, 학대와 따돌림이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와 따돌림이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 등에서 성별 차이가 나타났다. 공격성에 대한 영향 경로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았고, 우울에 대한 영향 경로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았다. 성별에 따라 상이한 결과에 근거하여 청소년복지의 실천적,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주제어 : 학대, 따돌림, 학업성취, 문제해결능력, 우울, 공격성, 성별차이

* 이 논문은 2010년도 정부재원(교육과학기술부 인문사회연구역량강화사업비)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10-330-B00206). 또한 본 연구는 2012년 한국사회복지학회 춘계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논문을 수정 보완한 것임.

**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전문대학원 부교수, 교신저자, ichung@ewha.ac.kr

***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전문대학원 석사

I. 문제제기

가정 내 학대와 학교 내 따돌림은 세계 어느 곳에서나 청소년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사회문제이다. 최근의 아동학대 실태조사(보건복지부·숙명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2011)에 의하면 만 7-18세 아동청소년이 보고한 연간 아동학대 발생률은 27.5%로 나타났다. 경미한 학대까지 포함한 좀 더 포괄적인 기준에 의하면 발생률이 60.3%에 이를 정도로 광범위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미국에서는 한해 30%의 학생이 집단 따돌림을 경험할 정도로 그 문제가 심각해 일부 주(州)는 ‘왕따 방지법(anti-bullying law)’을 제정하였고 우리나라 역시 급증하고 있는 학교 내 집단 괴롭힘과 관련하여 이에 가담한 학생을 강제로 전학을 보내는 등 강력한 조치를 담은 ‘왕따 폭력 방지법’이 마련될 전망이다(조선일보, 2012년 1월 12일).

학대와 따돌림 피해와 관련하여 경험하는 정서로는 우울, 분노, 보복심, 좌절 등의 부정적 정서가 대표적이다(이아영, 2011). 이때 분노 혹은 좌절은 타인에 대한 공격적 행동을 유발하는 원인이 될 수 있으며, 학대와 따돌림의 피해 경험은 청소년기 발달상의 특성에 의해 전이된 공격성(displaced aggression)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고 전이된 공격성은 불특정 대상에게 표출될 수 있다(Chermack et al., 1997). 청소년기의 대인관계는 주로 가정과 학교에서 이루어지며, 이 과정에서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할 수 있고(정익중, 이지언, 2010) 청소년이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경우에는 성인과는 달리 생리적 변화로 인해 심리적 스트레스가 가중된다. 특히 가정 내 학대와 학교 내 집단따돌림의 심각하고 만성적인 스트레스가 우울의 중요한 위험요인으로 작용한다(Pranjic & Bajraktarevic, 2010; Chen & Hsi, 2011; 박종효, 2007; 전해숙, 2008). Barchia & Bussey(2010)는 따돌림을 당한 청소년이 고통의 신호로서 우울을 나타내며 타인으로부터 따돌림을 받았을 때 마음속에 공격성도 유발된다고 하였다(Crapanzano et al., 2011; Lösel & Bender, 2011; Rueger et al., 2011). 부모로부터 학대를 받은 청소년 역시 높은 수준의 우울과 공격성을 보이는데(김은경·이정숙, 2009) 학대와 따돌림의 부정적 영향이 단기적인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인기에 들어선 이후의 정신건강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Aalsma & Brown, 2008; McCarty et al., 2008; Ttofi et al., 2011; 전해숙, 2008).

그러나 가정 내 학대와 학교 내 따돌림을 경험하는 청소년들이 모두 똑같은 수준의

우울과 공격성을 보인다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선행연구(Vranceanu et al., 2007; 박종효, 2007; 김은경·이정숙, 2009; 홍영수, 2011)들은 성별 또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보호요인에 따라 유발되는 우울과 공격성의 차이가 유의미함을 보고하고 있다(서미정, 2009). 특히 문제해결능력은 개인의 스트레스를 다루는 중요한 개인적 자원으로 부족한 문제해결기술을 가지고 있는 아동청소년은 쉽게 좌절을 경험하고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를 받을 때 자살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된다고 보고하였다(하상훈, 2000). 또한 학교교육은 대부분 입시 위주로 진행되어 청소년들은 과도한 경쟁 속에서 입시 경쟁의 부담과 공부에 대한 압박감 등의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그러나 만약 개인적 위험상황에서 학업성취가 높다면 중요한 보호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청소년의 문제해결능력이나 학업성취 수준은 사정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그에 대한 개입방안도 다양하여 중요한 개입의 표적이 될 수 있다.

우울은 여학생에게 많고 공격성은 남학생에게 많아 성별이 중요한 통제변수로 투입되지만 우울과 공격성을 동시에 살펴보는 경로모형에서 성별 차이를 본격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아직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남학생과 여학생의 경로모형 비교를 통해 성별 차이를 탐색해 볼 것이다. 이를 통해 학대와 따돌림이 우울과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부정적인 경로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고, 성별 차이를 반영한 효과적인 개입 방안을 모색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II. 이론적 배경

1. 학대, 따돌림, 문제해결능력, 학업성취와 우울 간의 관계

우울은 청소년기에 가장 빈번하게 관찰되는 문제 중의 하나이다(Marcotte et al., 2002). 성인의 우울증과 비교해 청소년의 우울증은 ‘위장된 우울증(masked depression)’이라는 용어로 개념화 되는데 우울이 감추어진 형태로 나타나서 증상이 확연하게 드러나지 않고 조기 발견이 어렵고 방치될 우려가 많다(Chiles et al., 1980).

청소년기 우울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환경적 요인으로 부모와 친구요인을 들 수 있다. 피학대 경험은 우울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전 생애에 걸쳐 다양한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발달 및 적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Hoglund, 2007; Vranceanu et al., 2007; 배화옥, 2010). 청소년기 발달과정에서 또래관계 역시 매우 중요하며 따돌림으로 인해 또래관계가 훼손될 경우 우울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Chen & Hsi, 2011). 이 시기의 학생들은 가족이라는 울타리를 넘어 또래관계를 중요한 사회적 관계의 축으로 여기며, 또래관계를 통해 필요한 의사소통기술과 갈등해결기술 등을 배우게 된다(이정숙 외, 2007). 우울은 또래관계의 질과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또래관계의 질이 높은 청소년일수록 우울을 낮게 경험하며(Ross et al., 2010; Nakamoto & Schwartz, 2011) 따돌림의 경험이 많을수록 우울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노언경·홍세희, 2010; 김혜원, 2011).

우리나라 청소년에게 있어 학업성취는 부모와 친구요인 이상으로 우울을 유발하는 요인이다. 학업성취에 대한 지나친 강조는 청소년기 정신건강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데, 학업성취 수준이 상위나 중간집단보다 하위집단이 우울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Schwartz et al., 2008). 문제해결능력은 정신건강에 중요한 자원으로 작용하여 다양한 잠정적 대안들을 많이 산출하고 그 대안들 중에서 가장 효율적인 것을 선택해 낼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는 능력이라 할 수 있다(김혜원, 2011). 문제해결능력과 우울 사이에 부적(-) 상관관계가 있다고 나타난 결과는(Barchia & Bussey, 2010) 우울한 집단이 문제해결능력의 부족뿐만 아니라 부정적 인지나 정서 때문에 문제해결능력의 손상이 생기게 되며 우울 집단은 우울하지 않은 집단에 비해 적절한 수단들을 고안해 내는 능력이 낮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2. 학대, 따돌림, 문제해결능력, 학업성취와 공격성 간의 관계

공격성은 폭력, 파괴적 행동, 충동적 행동을 포함하며 분노, 적의, 증오, 불만 및 원한 등에 의하여 타인과 자기 자신 또는 기타 대상에 대해 심한 손해, 상해, 또는 공포감을 일으키는 행동을 말한다(이아영, 2011). 가정에서 부모는 자녀의 역할모델로서 기능하여 자녀들은 부모의 행동을 모방하므로 부모의 공격성 정도와 청소년의 공격성 정도는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Larsen & Dehle, 2007). 부모의 공격성이 표출되는 학대는 자녀의 공격성을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정익중, 2008). 또한 청소년기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사회적 요인으로는 학교 내 또래관계를 들 수 있다. 청소년기에는 환경적 요소의 영향이 커지게 되고, 특히 부모로부터 점차 독립하면서 또래의 영향력이 커지게 된다. 또래의 따돌림과 학교적응에 관한 선행연구(Coie et al., 1990; Parker & Asher, 1993)를 살펴볼 때, 또래로부터 수용도가 높은 학생은 따돌림을 당하는 학생에 비해 원만한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리더십이 있으며 긍정적인 자아존중감을 갖는 반면, 따돌림을 당하는 학생들은 대체로 또래에게 공격적(Dallape, 2008; Pranjić & Bajraktarević, 2010)이고 학업성취가 낮은 경향이 있다(McCarty et al., 2008). 독일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따돌림 피해와 공격성의 종단적인 연구(Lösel & Bender, 2011)에서도 따돌림 피해 학생의 5년 후 공격성을 측정한 결과, 공격성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성취는 청소년기의 학교적응 수준을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로서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이다. Chen, Rubin and Li(1997)의 종단연구에서 학업성취는 청소년기 학생들의 공격성 및 파괴적 행동과는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는데 욕구좌절이론으로 해석한다면, 공격성은 목적을 달성하려는 학업성취 욕구가 좌절되었을 때 파생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문제해결능력의 부족은 또래와의 갈등을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서 공격적인 반응을 만들 수 있어 또래관계를 더욱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타인과의 사회적 상호작용 시 공격적이거나 부정적인 성향을 보인다(엄화운 외, 2010).

3. 성별 차이

우울증의 유병률이 남성보다 여성에서 높다는 결과는 수많은 역학연구를 통해 보고되었는데 청소년기 우울 역시 15-18세에 여자 청소년들의 발병률이 급증하여(Twenge & Nolen-Hoeksema, 2002). 성인까지 지속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와는 상반되게 청소년기 우울은 성별에 따른 차이가 없다는 연구결과(이정숙 외, 2007)도 공존하고 있다. 그러나 대체로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2대 1 이상의 높은 성비를 보인다는 일 치된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학교생활과 우울 간의 관계에서 남학생은 학업과 친구요인이 우울과 높은 정적(+) 상관관계를 보인 반면, 여학생은 친구요인만이 우울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박기원, 2009). 이와 같이 청소년기에 두드러지는 우울 양상이

남녀 청소년에게 달리 나타나며 그 관련 변인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성별에 따른 우울과 학업성취 간의 관계(Rueger et al., 2011)에서는 여학생의 경우에서만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따돌림 피해 경험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력에서 성별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는 연구(김혜원, 2011)와 남학생이 더 많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우울에 더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연구(Crick & Grotpeter, 1995)가 공존하고 있다. 따돌림이 노출되는 방식에 있어서의 남녀 성차의 연구(이춘재, 박금주, 2000)를 고려해 볼 때 남학생은 여학생에 비해 더 복잡한 사회적 연결망을 가지고 있는 경향성을 보이기 때문에 신체적 괴롭힘의 직접적 따돌림에 노출되는 반면, 여학생은 소문을 통한 사회적 괴롭힘이나 고의적인 배척 형태인 간접적인 따돌림에 노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Crick & Bigbee, 1998).

공격성의 성차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상반되는 결과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현저하게 공격성이 높다는 사실이 지배적이다(이아영, 2011). 남학생은 주로 직접적이고 외현적인 행동에 의한 공격(overt aggression)을 가하는 경향이 높고, 여학생은 간접적이거나 관계적인 공격성(relational aggression)의 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Archer, 2004; Card et al., 2008). 이러한 결과는 공격성을 표출하는 방식에 있어서 성별 차이가 있음을 의미하고 있다(Crick & Grotpeter, 1995; Crick & Bigbee, 1998). 하지만 학대 경험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성별 차이가 있다는 연구(Kerig, 1996)와 성별 차이가 없다는 연구(Moretti et al., 2006)가 공존하고 있다. 청소년의 스트레스, 자아존중감 및 자기통제감과 공격성의 구조적 관계를 성별 차이를 중심으로 연구한 홍영수와 김동기(2011)는 남학생은 스트레스를 공격성으로 직접 해소하는 반면, 여학생은 스트레스의 원인이 본인에게 있다고 자책함으로써 공격성에 이른다고 보고하였다. 따돌림 피해 시에 나타나는 공격성의 성별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남녀 모두 따돌림의 피해를 받으면 공격성이 유발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문제해결능력의 성별 차이를 분석한 연구(장수정, 2004)에 따르면 고등학생들의 문제해결능력은 성별에 따라 크게 다르지 않지만 남학생의 문제지향성과 문제해결기술은 여학생보다 높게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

III. 연구방법

1. 분석자료

본 연구는 아동청소년발달의 종합적인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2008년 구축된 한국 아동청소년종합실태조사¹⁾ 자료를 활용하였다. 이 조사는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의 연령대별 발달 욕구와 양육환경에 대한 실태조사이며 아동청소년의 현황과 복지 상태를 연령별, 계층별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다양한 지표를 개발하고 그러한 지표를 실증적으로 제시한 기초자료이다. 실태조사에 포함된 18세 이하 자녀가 있는 총 6,923가구 중 12-18세의 청소년이 있는 2,306가구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표본으로 선정된 청소년을 대상으로 자기기입식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최종 분석대상 중 여자 청소년은 1,159명(50.3%), 남자 청소년은 1,147명(49.7%)이었다. 분석대상자의 가구 특성을 살펴보면, 1,376명(59.7%)이 일반가구 청소년, 130명(5.6%)이 차상위가구 청소년, 800명(34.7%)이 기초생활보장가구 청소년이었다. 대상자의 연령별 분포를 살펴보면, 12세 12.4%, 13세 16.8%, 14세 16.2%, 15세 16.9%, 16세 16.6%, 17세 12.7%, 18세 8.4%로 연령별로 고른 구성 비율을 보였다.

2. 주요변수의 측정

1) 우울

우울을 측정하기 위하여 Achenbach와 Edelbrock(1983)이 개발한 아동·청소년 행동평가척도(Child Behavior Checklist: CBCL)를 오경자 등(1998)이 변안한 척도 중 우울에 해당되는 13문항을 사용하였다. 그 문항의 예로는 “외롭다고 불평한다”, “잘 운다”, “나쁜 생각이나 나쁜 행동을 할까 두려워한다” 등이 있으며 3점 리커트 척도(1 ‘전혀 아니다’, 2 ‘그런 편이다’, 3 ‘자주 그렇다’)를 통해 측정된 점수를 사용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감의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우울증 척도의 신뢰수 계수는 .86으로 비교적 높은 신뢰도를 보였다.

1) 본 연구에서 사용된 한국아동청소년종합실태조사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2009)의 최종보고서를 참고하기 바란다.

2) 공격성

공격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Achenbach와 Edelbrock(1983)이 개발한 아동·청소년 행동평가척도(Child Behavior Checklist: CBCL)를 오경자 등(1998)이 번안한 척도 중 공격성에 해당되는 15문항을 사용하였다. 그 문항의 예로는 “말다툼을 자주한다”, “내 물건을 부순다”, “신체적으로 남을 공격한다” 등이 있으며 3점 리커트 척도(1 ‘전혀 아니다’, 2 ‘그런 편이다’, 3 ‘자주 그렇다’)를 통해 측정된 점수를 사용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공격성의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공격성 척도의 신뢰수 계수는 .88로 비교적 높은 신뢰도를 보였다.

3) 학대

학대를 측정하기 위하여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개발한 아동학대 문항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의 하위영역은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방임으로 구성되어 있다. 신체적 학대는 “부모님이 나를 밀쳐서 벽에 머리를 부딪쳤다”, “부모님의 발에 차이거나 깨물리거나 주먹에 맞았다” 등 5문항을 포함한다. 정서적 학대는 “내가 수치심이 나 모욕을 느낄 정도로 부모님이 꾸짖은 적이 있다” 등 3문항을 포함한다. 방임은 “부모님이 외출하여 어두워질 때까지 나 혼자 집을 본 적이 있다” 등의 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학대 경험은 전혀 없었다(1점), 1년에 1-2번 정도(2점), 2-3개월에 1-2번 정도(3점), 한 달에 1-2번 정도(4점), 일주일에 1-2번 정도(5점)의 리커트 척도로 측정된 점수를 합산하여 사용하였다. 아동학대의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방임에 대한 신뢰도 계수는 .73, .78, .70이었다.

4) 따돌림

집단따돌림을 측정하기 위하여 집단따돌림 피해 문항을 사용하였다. “다른 아이들이 나를 고의로 어떤 일에 끼워주지 않거나 따돌리고 무시한 적이 있다”, “다른 아이들이 나에게 겁을 주거나 때려서 돈이나 물건을 빼앗긴 적이 있다” 등 4점 리커트 척도의 6문항을 포함한다. 따돌림 피해 척도의 신뢰도 계수는 .79이었다.

5) 문제해결능력

문제해결능력을 측정하기 위하여 합리적 문제해결방식 문항을 사용하였다. “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체적인 계획을 세운다”, “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정보를 모은다” 등 4점 리커트척도의 6문항을 포함한다. 문제해결능력의 신뢰도 계수는 .87이었다.

6) 학업성취

학업성취를 측정하기 위하여 청소년 자신이 보고한 국어, 영어, 수학, 기타 네 과목의 현재 성적을 학업성취 변수로 활용하였다. 리커트 척도(매우 못함 1점 매우 잘함 10점)를 통해 측정된 점수를 사용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학업성취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문항 간 신뢰도는 .91이었다.

3.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학대와 따돌림이 우울과 공격성에 이르는 경로에서 문제해결능력과 학업성취의 매개효과와 성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을 사용하였다. 구조방정식 모형은 Amos 16.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절차는 측정모형을 먼저 추정하고, 얻어진 측정모형을 활용하여 구조모형을 추정하는 단계로 진행되었다. 성별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구조방정식 모형의 다중집단 분석을 진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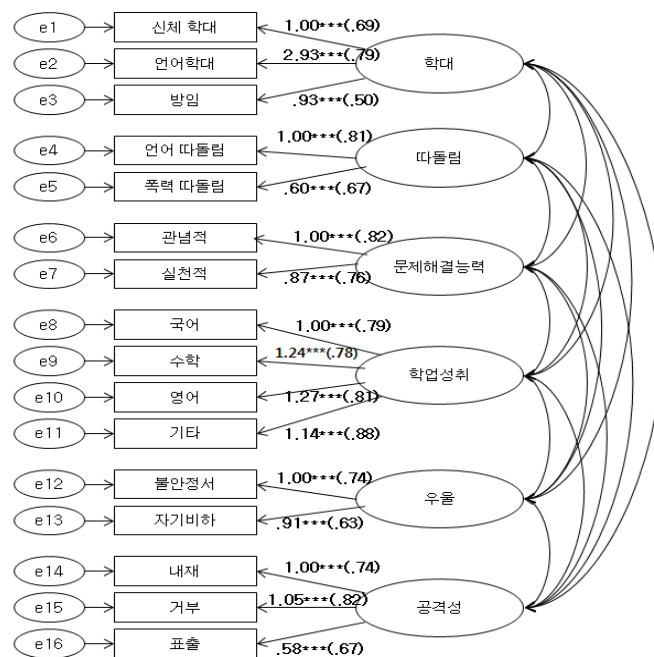
이 때 모형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근거로 적합도 지수를 사용하는데, 표본의 영향을 받지 않으며 모형의 간명성과 오류를 동시에 고려하는 적합도 지수를 사용한다.

χ^2 은 표본 크기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적합도 지수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상대적 적합도 지수인 CFI와 TLI, 절대적 적합도 지수인 GFI와 RMSEA를 통한 모형평가를 구조방정식 모형에서 바람직한 지수로 권장하고 있다(김계수, 2011).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CFI, TLI, GFI, RMSEA 등을 통해 모형 적합도를 평가하였다.

IV. 연구결과

1. 측정모형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학대와 학교 내 따돌림이 우울과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을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해 분석하였다. 선행연구를 토대로 학대와 따돌림이 문제해결능력과 학업성취를 매개로 하여 우울과 공격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하고, 이는 성별에 따라 영향력이 달라질 것이라고 설정하였다. 구조방정식 모형은 잠재변수를 규정하기 위한 측정모형의 개발과 잠재변수들 간의 관계 또는 구조모형의 설정이 모두 포함되며, 측정모형은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이루어진다. 본 연구의 측정모형의 적합도는 $\chi^2=583.827^{***}(df=89)$, CFI = .965, TLI = .952, GFI = .969, RMSEA = .049로 나타났다. 적합도 지수의 기준에 근거하여 본 연구의 측정모형은 적합한 수준으로 자료에 잘 부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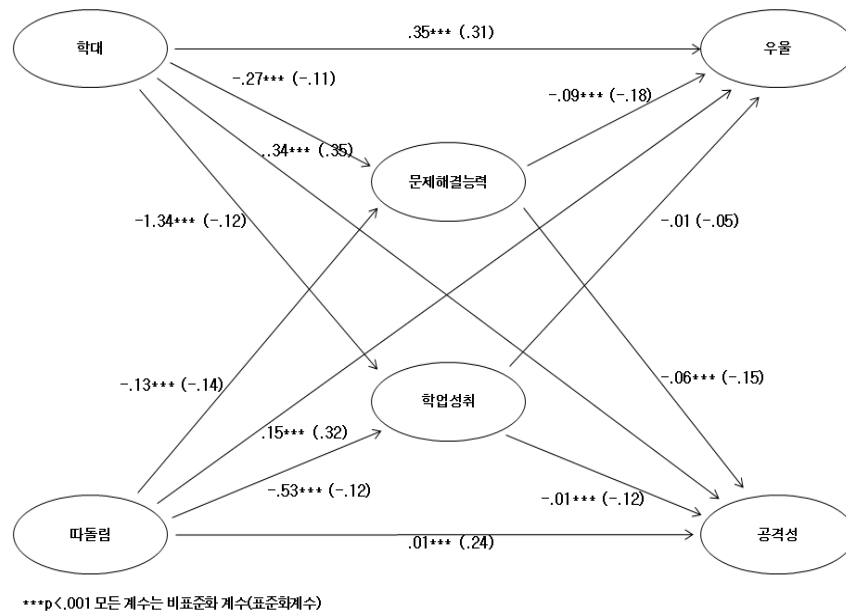


***p<.001 모든 계수는 비표준화계수(표준화계수)

[그림 1] 측정모형

2. 구조모형

본 연구에서는 관련 선행연구에 대한 고찰을 통하여 학대, 따돌림, 문제해결능력, 학업성취, 우울, 공격성의 관계구조를 [그림 2와 같이 설정하였다. 본 연구의 구조모형의 적합도는 $\chi^2 = 852.470^{***}(df=90)$, CFI = .945, TLI = .927, NFI = .939, RMSEA = .061로 나타나 적합도 지수의 기준에 근거하여 본 연구의 구조모형은 적합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그림 2] 구조모형

학대, 따돌림, 우울 그리고 공격성 간의 관계가 매개변수들에 의해 부분 매개되는지 완전 매개되는지 파악하기 위해 학대, 따돌림, 우울, 공격성으로의 직접경로가 포함된 모형과 그렇지 않은 모형의 적합도가 높은지 살펴보았다. 직접경로가 포함되지 않은 완전매개모형이 직접경로가 포함된 부분매개모형의 내포(nested)모형이기 때문에 카이제곱 차이검정(chi-square difference test)을 통해 적합도를 비교하였다. 완전매개 모형과 부분매개모형의 적합도를 비교한 결과, 완전매개모형은 $\chi^2(94)=1295.868$, 부분

매개모형은 $\chi^2(90)=852.470$ 으로 나타나 그 차이가 $\Delta\chi^2(4)=443.398$ 로 .001 유의수준의 임계치인 13.277보다 큰 것으로 나타나 두 모형의 적합도에 있어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1). 부분매개모형의 적합도의 증가가 직접경로를 포함하여 생긴 간명성 상실을 상쇄하고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직접경로가 포함된 부분매개모형이 그렇지 않은 완전매개모형에 비해 자료에 대한 적합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모형의 비교

모형		df	NFI	CFI	TLI	RMSEA
완전매개 모형	1295. 868	94	.908	.914	.890	.074
부분매개 모형	852.470	90	.939	.945	.927	.061
$\Delta\chi^2(4)=443.398^{***}$						

***p<.001

부분매개모형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학업성취=>우울 경로만 제외하고 모두 유의미하였다. 매개변수를 포함한 연구모형에서 경로계수의 크기는 감소하였지만 여전히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서 학대와 따돌림이 매개변수에 의해서 완전히 매개된다고 보기 어렵고, 학업성취나 문제해결능력에 의해 부분적으로 매개되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는 비슷하게 학대와 따돌림을 받는 경우라도 학업성취나 문제해결능력에 따라 우울과 공격성에 대한 영향이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유의미한 영향이 있다고 추정된 경로계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부모학대와 따돌림을 많이 경험한 청소년은 문제해결능력이 떨어지고 저하된 문제해결능력은 우울과 공격성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모학대와 따돌림을 많이 경험한 청소년은 학업성취가 떨어지고 저하된 학업성취는 공격성을 증가시키는 경향이 높았지만, 우울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성별에 따른 다중집단 분석

다중집단 분석은 측정모형의 동일성, 구조모형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측정동일성 검증은 각 집단 간 요인계수 결과가 동일한지를 검증하는 것이며, 구조동일성 검증은 일련의 경로계수들에 대해 제약을 가한 후, 각 경로에서 집단 간의 차이가 존재하는 지를 검증하는 것이다(Kline, 2010).

1) 측정동일성 검증

측정동일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남녀 두 집단 간 요인계수에 동일성 제약을 하지 않은 모형을 기저모형으로 하고, 각 집단의 요인계수에 동일성 제약을 가한 모형을 제약모형으로 하여 두 모형간의 χ^2 값의 차이와 적합도 차이를 확인하였다. 그러나 기저모형과 제약모형의 χ^2 값의 차이는 51.80(df=10)으로 나타나 유의수준 임계치보다 큰 것으로 나타나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완전 측정동일성은 성립되지 않았다. 따라서 부분 측정동일성 검증을 실시하였다. 요인계수 값을 살펴 본 결과 남녀 간의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난 따돌림에서 폭력따돌림으로 가는 요인계수, 공격성에서 거부로 가는 요인계수, 공격성에서 내재로 가는 요인계수 순으로 요인계수 동일성 제약을 풀어준 부분 측정동일성 검증 결과는 <표 2>와 같이 CFI, TLI, RMSEA의 값이 나빠지지 않았고, χ^2 값의 차이(2.147)가 유의수준 .05의 임계치(14.067)보다 작으므로 유의한 차이가 없다. 그러므로 부분 측정동일성 모형이 기각되지 않고 성립되었다. 이는 구조동일성 검증을 하기 위한 전제조건이 충족되었다고 할 수 있다.

<표 2> 측정동일성 검증 결과

	χ^2	$\Delta\chi^2$	df	Δdf	CFI	TLI	RMSEA	검증 결과
기저 모형	998.722	-	180	-	.942	.923	.044	-
완전측정 동일성 모형	100.531	51.808	190	10	.939	.923	.044	기각
부분측정 동일성 모형	100.869	2.147	187	7	.942	.926	.044	성립

<표 3> 측정모형 요인계수의 성별 차이

요인계수	남학생	여학생
따돌림 => 폭력따돌림	.862***(.771)	.488***(.350)
공격성 => 거부	1.637***(.807)	1.889***(.888)
공격성 => 내재	1.617***(.715)	1.745***(.719)

***p<.001, 괄호는 표준화계수

2) 구조동일성 검증

구조동일성 검증은 집단 사이에 존재하는 경로계수 간의 유의미한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모형 내에 존재하는 경로계수에 각각 동일성 제약을 가한 모형과 동일성 제약을 가하지 않은 기저모형을 비교한다. 구조동일성의 기저모형은 각 남녀 집단 간 경로계수에 동일성 제약을 하지 않은 모형이고, 제약모형은 남녀 집단 간 경로계수에 동일성 제약을 가한 모형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기저모형과 제약모형의 χ^2 값의 차이(31.354)는 유의수준 .05의 임계치(21.026)를 초과하여 완전 구조동일성 모형이 기각되었다.

<표 4> 구조동일성 검증 결과

	χ^2	$\Delta\chi^2$	df	Δdf	CFI	TLI	RMSEA	검증 결과
기저 모형	1000.869	-	187	-	.942	.926	.043	-
완전구조 동일성 모형	1032.223	31.354	199	12	.941	.929	.043	기각
부분구조 동일성 모형	1002.845	1.976	193	6	.942	.928	.043	성립

완전 구조동일성이 기각되었기 때문에 부분 구조동일성 검증을 실시하였다. 부분 구조동일성 검증은 잠재변수 간의 전체 경로계수를 남녀 집단별로 제약한 후 하나씩

제약을 풀어주면서 비교하였다. 학대=>공격성, 따돌림=>공격성, 따돌림=>우울, 학업성취=>공격성, 따돌림=>학업성취, 학업성취=>우울의 경로계수의 제약을 풀어준 경우 CFI, RMSEA 값의 변화가 없고 χ^2 값의 증가분(1.976)이 유의수준 .05의 임계치 (12.592)를 초과하지 않아 부분 구조동일성이 성립되었다. 성별 차이가 나타난 주요 변수의 경로계수는 <표 5>와 같다.

<표 5> 구조모형 경로계수의 성별 차이

경로계수	남학생	여학생
따돌림 => 학업성취	-.405(-.292)	-1.094***(-.750)
학업성취 => 우울	-.004(-.003)	-.009***(-.016)
따돌림 => 우울	.246***(.136)	.351***(.203)
따돌림 => 공격성	.143***(.138)	.141***(.079)
학대 => 공격성	.378***(.411)	.335***(.293)
학업성취 => 공격성	-.097***(-.018)	-.089***(-.008)

***p<.001, 괄호는 표준화계수

구체적으로 남녀 집단별 경로계수를 살펴보면, 학대, 따돌림 그리고 학업성취가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계수에서는 남녀 두 집단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또한 따돌림이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계수에서도 남녀 두 집단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 결과에서 남학생의 공격성 관련 경로계수는 여학생보다 높고, 여학생의 우울 관련 경로계수는 남학생보다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학업성취가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서는 여학생이 학업성취가 낮아질수록 우울감이 높아진다는 결과와 상반되게 남학생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나타내지 않았다. 이는 청소년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중에서 학업성취의 경우 남녀 집단 간에 차이가 있음을 의미한다. 학업성취가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서는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나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더 강하게 나타났다. 따돌림이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서는 여학생의 경우 따돌림을 받을수록 학업성취가 낮아지는 반면에 남학생의 경우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나타내지 않았다.

V. 결 론

가정 내 학대와 학교 내 따돌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해 예방 및 피해 구제가 동시에 필요한데 본 연구는 피해 청소년에게 나타나는 부정적인 정서를 살펴 보면서 학대와 따돌림의 피해 해소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학대와 따돌림이 학업성취와 문제해결능력을 매개로 하여 청소년기 우울과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서 매개효과와 성별 차이를 확인하고자 한 것으로 그 결과와 논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대와 따돌림이 학업성취와 문제해결능력에 의해서 부분적으로 매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서 부모학대와 따돌림을 많이 경험한 청소년은 학업성취와 문제해결능력이 떨어지고 저하된 문제해결능력은 우울과 공격성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비슷한 수준의 학대와 따돌림을 받는 경우라도 학업성취나 문제해결능력의 수준을 통해 우울과 공격성에 다르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학대나 따돌림 피해 청소년의 우울과 공격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학업성취를 점검하고 문제해결능력을 향상시키는 프로그램이 정규 학교보건과정에서 체계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둘째, 학대와 따돌림이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와 따돌림이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서 남학생과 여학생간의 영향력의 성별 차이를 확인하였다. 남녀 학생 모두 경로에서 유의하였지만 공격성에 대한 영향경로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고, 우울에 대한 영향경로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여자 청소년이 남자 청소년보다 더 높은 우울을 보고한다는 기존의 연구결과들(Twenge & Nolen-Hoeksema, 2002; Wade et al., 2002; 박기원, 2009)과 일치한다. 일반적으로 여자는 내향적 성향이고 남자는 외향적 성향이기 때문에 여자는 남자에 비해 공격 본능을 표출하기가 어려우며, 억제를 많이 사용한다는 것과도 통한다고 할 수 있다(곽금주·문은영, 1993). Levit(1991)의 연구 역시 남자 청소년은 외부로 향한 공격적인 방어를, 여자 청소년은 자신의 내부로 향한 방어를 사용한다고 보고하였다. 남학생은 스트레스에 직면한 경우 대상에게 공격성을 가함으로써 직접적으로 해소하는 반면, 여학생은 스트레스의 원인이 본인에게 있다고 자책함으로써 낮은 자아존중감과 낮은 자기통제력의 매개변인을 통해 공격성이 표출된다고 한다(홍영수·김동기, 2011). 청

소년기 우울과 인지적 왜곡의 관계를 성별 차이로 분석한 선행연구(이희연, 2006)에서도 부정적 사건에 직면했을 때 인지적 취약성을 가진 개인이 더욱 우울하다고 하는데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인지적으로 더욱 취약하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므로 심각한 우울과 공격 성향을 보이는 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교현장의 상담 프로그램에서는 남학생과 여학생간의 차별화 된 전략이 필요하다. 남학생은 공격성 감소를 위한 개입을 선별하여 학대와 따돌림의 완화 중심으로 부모와의 관계를 올바르게 정립할 수 있는 가족단위의 집단상담과 부모교육, 또래 지지를 활용한 집단 프로그램 등을 마련해야 한다. 여학생은 우울 감소를 위한 개입을 선별하여 심리적 대처요인인 문제해결능력을 향상시켜주는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하며 심리적 요인을 중심으로 한 개입 프로그램이 여학생의 부정적인 자동적 사고의 영향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따돌림이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와 학업성취가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서 성별 차이를 확인하였다. 여학생의 경우 따돌림을 받을수록 학업성취가 낮아지는 반면에 남학생의 경우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나타내지 않았다. 또한 학업성취가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서는 여학생만이 유의한 결과를 나타냈을 뿐 남학생은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래에 대해 집중적이고 빈번하고 친밀한 관계를 추구하는 여학생은 따돌림을 받을 경우 심리적인 반응이 크며 이는 학업성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여학생의 학업성취는 대인관계 및 정서 영역에 의해서도 좌우될 수 있으며 심리적인 요인에 의해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남학생은 직접적인 따돌림에 더 노출되는 반면, 여학생은 간접적인 따돌림 피해가 남학생의 직접적인 따돌림보다 더욱 심각한 심리적 영향을 준다는 선행연구(Crick & Grotpeter, 1995)를 근거로 하여 따돌림과 학업성취의 경로에서 여학생만이 영향을 받는다는 결과가 타당성을 얻을 수 있다. 여학생의 학업성취만 우울과 유의한 관계가 있다는 의미는 Nolen-Hoeksema의 스트레스 대처 양식에 대한 생물학적 반응의 성차에서 이론적 지지를 얻을 수 있다(유성진, 2010). 이론상으로 기질은 가치중립적인 것이지만, 실제로는 적응에 더 유리한 기질 유형과 더 불리한 기질 유형이 존재한다(유성진, 2010). 기질과 심리장애와의 관련성을 연구해 온 Cloninger(1987) 역시 사회적 민감성 기질은 스트레스에 대한 적응에 더 불리하다고 하였으며, 여자 청소년이 남자

청소년보다 사회적 민감성이 유의하게 높다고 보고하였다(오현숙, 2009). 따라서 여자 청소년이 기질적으로 스트레스에 대한 적응에 더 불리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간접적인 따돌림 피해 경험으로 인해 심각한 우울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여학생에게는 남학생과는 달리 차별적인 우울 예방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부정적인 정서조절능력의 향상, 또래관계의 개선 및 강화, 또래관계 기술 습득 등을 위한 프로그램을 통해 여학생만을 위한 차별적인 개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따돌림은 여학생의 심각한 적응상의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Crick & Bigbee, 1998). Schwartz et al.(2008)은 따돌림으로 인한 낮은 학업성취와 우울의 경로에서 친구의 지지가 여학생의 우울을 감소시킨다는 결과를 제시하면서 부모나 교사는 따돌림 피해 경험이 있는 여학생을 위한 절친(친구) 만들기 전략을 활용해야 한다고 보고하였다.

요약하면 학대와 따돌림은 남녀 모두에게 우울과 공격성이라는 문제를 가져오지만 남학생에게는 공격성에 이르는 경로에 더 크게 작용하고 여학생에게는 우울에 이르는 경로에 더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학대와 따돌림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서는 남녀 공통적인 요소가 반영된 프로그램도 필요하지만 남학생과 여학생의 특성을 고려한 차별적인 대책이 요구된다. 학대와 따돌림의 피해를 경험한 경우 반드시 우울과 공격성에 대한 사정이 필요하고 여학생에게는 특히 더 우울의 피해가 없는지, 남학생에게는 공격성이 특히 더 발현되지 않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학대와 따돌림 피해를 당하면 남녀 모두 공히 치료가 필요하지만 여학생에게는 우울 관련 치료프로그램을 좀 더 충실히 진행하고, 남학생에게는 공격성 관련 치료프로그램을 충실히 진행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가 갖는 한계와 후속연구의 과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매개변수로서 개인차원의 심리적 대처요인인 문제해결능력과 학업성취만 투입하였다. 심리적 대처요인을 좀 더 다양하게 투입하여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으며 매개요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연령이나 부모 양육태도 등과 같은 통제변수의 영향력도 고려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는 한국아동청소년종합실태조사의 횡단 자료를 사용함으로써 변수들 간의 선후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 학대와 따돌림 간에는 시간적 선후관계가 없는 것으로 연구모형을 구성했지만 학대는 따돌림보다 선행할 수 있다. 부모로부터 학대받은 아동은 제한된 대인관계기술로 인해 학교 내에서 친구를 사귀는데 어려움을 겪을 뿐 아니라 행동이

일반아동과 다르거나 부적절하다는 이유로 또래집단으로부터 소외되거나 따돌림을 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정익중, 2008). 우울과 공격성도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할 수 있으므로 종단 연구를 통해 본 연구의 결과가 재검증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학대는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방임으로, 따돌림역시 직접적 따돌림, 간접적 따돌림으로 구분하여 우울과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분석한다면 우울과 공격성의 예방과 치료를 위한 대안을 모색하는데 있어 더욱 다각적이고 입체적인 정보 제공이 가능할 것이다.

참고문헌

- 곽금주·문은영(1993). 청소년의 심리적 특징 및 우울과 비행 간의 관계. *한국심리학 회지: 발달*, 제6권 제2호, pp. 29-43.
- 권재기(2011). 집단따돌림 피해 경험의 발달양상과 내면화, 외현화 문제행동의 변화: 잠재계층 성장분석, 다집단 성장혼합모형을 이용한 종단연구. *한국아동복지학*, 제34권, pp. 96-127.
- 김은경·이정숙(2009). 아동의 학대 경험이 정서와 인지적 편향을 매개로 우울과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제22권 제3호, pp. 1-18.
- 김혜원(2011). 집단따돌림과 집단 괴롭힘에 따른 남녀 청소년들의 심리적 건강, 학교인식 및 학교적응에 대한 구조분석. *청소년복지연구*, 제13권 제2호, pp. 173-198.
- 노언경·홍세희(2010). 초기 청소년의 정서적 우울 변화에 따른 잠재계층 분류와 성별, 관계 친밀도와 관련성 검증. *교육방법연구*, 제22권 제2호, pp. 91-110.
- 박종효(2007). 집단따돌림에 대한 이해, *한국청소년연구*, 제18권 제1호, pp. 247-272.
- 배화옥(2010). 아동의 학대경험이 학교 적응에 미치는 영향. *아동과 권리*, 제14권 제2호, pp. 193-217.
- 보건복지가족부·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2009). *한국아동청소년종합실태조사*.
- 보건복지부·숙명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2011). *아동학대 실태조사*.
- 서미정(2009). 아동과 청소년의 외현적, 관계적 공격성의 성별 차이 및 관련변인에 대한 메타분석. *아동학회지*, 제32권 제3호, pp. 143-162.
- 엄화윤·이해정·임연정(2010). 문제해결 프로그램이 여중생의 문제해결능력, 자아존중감 및 우울에 미치는 영향. *정신간호학회지*, 제19권 제3호, pp. 318-328.
- 오현숙(2009). 중학생의 기질, 성격, 지능, 성적의 관계에서의 성차.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제14권 제3호, pp. 387-407.
- 유성진(2010). 불안증상의 발현에서 위험회피 기질과 체험회피 시도의 역할.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이아영(2011). 초등학생 공격성의 영향요인: 부부간 폭력과 학대경험을 중심으로. *숭실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정숙·권영란·김수진(2007). 청소년의 집단따돌림 피해와 우울이 자살사고에 미치

- 는 영향. 정신간호학회지, 제16권 제1호, pp. 32-40.
- 이춘재·곽금주(2000). 집단따돌림 경험 유형에 따른 자기개념과 사회적 지지.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제13권 제1호, pp. 65-80.
- 이희연(2006). 청소년기 우울장애의 성차에 대한 인지적 왜곡의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장수정(2004). 고등학생의 다면적 자아개념과 사회적 문제해결능력의 관계.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장신재·양혜원(2007). 부모-자녀관계, 우울 및 공격성과 학교적응 간의 구조모형 검증. 한국청소년연구, 제18권 제2호, pp. 5-29.
- 전해숙(2008). 아동학대 및 아동의 심리사회적 자원이 아동우울에 미치는 영향.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제30권, pp. 55-77.
- 정익중·박현선·구인회(2006). 괴학대 경험이 비행에 이르는 발달경로. 한국사회복지학, 제58권 제3호, pp. 223-244.
- 정익중·이지언(2010). 청소년기 비만과 외모만족도가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제38권 제2호, pp. 60-80.
- 정익중(2008). 아동학대 경험이 또래집단으로부터의 소외로 이어지는 발달경로. 이동학회지, 제29권 제4호, pp. 79-95.
- 조아미·조승희(2007). 집단따돌림의 발달적 변화와 유형에 따른 심리적 특성의 차이. 한국청소년시설환경학회지, 제5권 제3호, pp. 337-48.
- 하상훈(2000). 청소년의 자살 충동과 심리사회적 변인과의 관계. 인하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 홍영수·김동기(2011). 청소년의 스트레스, 자아존중감 및 자기통제감과 사이버비행의 구조적 관계: 남녀 차이를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제18권 제1호, pp. 127-148.
- 홍영수(2011). 부모학대가 아동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의 정서적 지지 효과에 대한 탐색적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제30권, pp. 25-44.
- Aalsma, M. C., & Brown, J. R.(2008). What is bullying?. *Journal of Adolescent Health*, Vol. 43, pp. 101-102.
- Archer, J.(2004). Sex differences in aggression in real-world settings: A meta-analytic review. *Review of General Psychology*, Vol. 8 No. 4, pp. 291-322.

- Barchia, K., & Bussey, K.(2010). The psychological impact of peer victimization: Exploring social-cognitive mediators of depression. *Journal of Adolescence*, Vol. 33 No. 5, pp. 615-623.
- Card, N. A., Stucky, B. D., Sawalani, G.M., & Little T. D.(2008). Direct and indirect aggression during childhood and adolescence: A meta-analytic review of gender differences, intercorrelations, and relations to maladjustment. *Child Development*, Vol. 79 No. 5, pp. 1185-1229.
- Chen, J. K., & Hsi, W. S.(2011). The impact of school violence on self-esteem and depression among Taiwanese junior high school students. *Social Indicators Research*, Vol. 100 No. 3, pp. 479-498.
- Chen, X., Rubin, K. H., & Li, Z.(1997). Relation between academic achievement and social adjustment: Evidence from Chinese children. *Developmental Psychology*, Vol. 33 No. 3, pp. 518-525.
- Chermack, S. T., Berman, M., & Taylor, S. P.(1997). Effect provocation on emotions and aggression in males. *Aggressive Behavior*, Vol. 23 No. 1, pp. 1-10.
- Chiles, J. A., Miller, M. L., & Cox, G. B.(1980). Depression in an adolescent delinquent population.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Vol. 37 No. 10, pp. 1179-1184.
- Cloninger, C. R.(1987). A systematic method for clinical description and classification of personality variants: A proposal.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Vol. 44 No. 6, pp. 573-588.
- Coie, J. D., Dodge, K. A., & Kupersmidt, J. B.(1990). Peer group behavior and social status. In S. R. Asher & J. D. Coie (Eds.) *Peer rejection in childhood*(pp. 17-59).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Crapanzano, A. M., Frick, P. J., Childs, K. & Terranova, A. M.(2011). Gender differences in the assessment, stability, and correlates to bullying roles in middle school children. *Behavioral Sciences and the Law*, Vol. 29 No. 5, pp. 677-694.
- Crick, N. R., & Bigbee, M. A.(1998). Relational and overt forms of peer

- victimization: A multiinformant approach.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Vol. 66 No. 2, pp. 337-347.
- Crick, N. R., & Grotpeter, J. K.(1995). Relational aggression, gender, and social-psychological adjustment. *Child Development*, Vol. 66 No. 3, pp. 710-722.
- Dallape, A.(2008). *Relational aggression among middle school girl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Florida, Gainesville, Florida, USA.
- Else-Quest, N., Hyde, J., & Goldsmith, H.(2006). Gender differences in temperament: A meta-analysis. *Psychological Bulletin*, Vol. 132 No. 1, pp. 3-72.
- Hawker, D. S., & Boulton, M. J.(2000). Twenty years' research on peer victimization and psychosocial maladjustment: A meta-analytic review of cross-sectional studies.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Vol. 41 No. 4, pp. 441-455.
- Hoglund, W. L.(2007). School functioning in early adolescence: Gender-linked responses to peer victimization.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Vol. 99 No. 4, pp. 683-699.
- Kerig, P. K.(1996). Assessing the links between interparental conflict and child adjustment.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Vol. 10 No. 4, pp. 454-473.
- Kline, R. B.(2010)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3rd ed.). New York: The Guilford Press.
- Larsen, D., & Dehle, C.(2007). Rural adolescent aggression and parental emotional support. *Adolescence*, Vol. 165 No. 42, pp. 25-46.
- Levit, D. B.(1991). Gender differences in ego defenses in adolescence: Sex roles as one way to understand the differenc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61 No. 6, pp. 992-999.
- Lösel, F., & Bender, D.(2011). Emotional and antisocial outcomes of bullying and victimization at school: A follow-up from childhood to adolescence. *Journal of Aggression Conflict and Peace Research*, Vol. 3 No. 2, pp. 89-96.
- Marcotte, D., Fortin, L, Potvin, P., & Papillon, M.(2002). Gender differences in

- depressive symptoms during adolescence: Role of gender-typed characteristics, self-esteem, body image, stressful life events, and pubertal status. *Journal of Emotional and Behavioral Disorders*, Vol. 10 No. 1, pp. 29-42.
- McCarty, C. A., Mason, W. A., A. Kosterman, R., & Hawkins, J. D.(2008). Adolescent school failure predicts later depression among girls. *Journal of Adolescent Health*, Vol. 43 No. 2, pp. 180-187.
- Moretti, M., Obsuth, I., Odgers, C., & Reebye, P.(2006). Exposure to maternal and paternal violence, PTSD, and Aggression in adolescent girls and boys. *Aggressive Behavior*, Vol. 32 No. 4, pp. 385-395.
- Nakamoto, J., & Schwartz, D.(2011). The association between peer victimization and functioning at school among urban Latino children. *Journal of Applied Developmental Psychology*, Vol. 32 No. 3, pp. 89-97.
- Parker, J. G., & Asher, S. R.(1993). Friendship and friendship quality in middle childhood: Links with peer group acceptance and feelings of loneliness and social dissatisfaction. *Developmental Psychology*, Vol. 29 No. 4, pp. 611-621.
- Pranjic, N., & Bajraktarevic, A.(2010). Depression and suicide ideation among secondary school adolescents involved in school bullying. *Primary Health Care Research and Development*, Vol. 11 No. 4, pp. 349-362.
- Ross, A. G., Shochet, I. M., & Bellair, R.(2010). The role of social skills and social connectedness in preadolescent depressive symptoms. *Journal of Clinical Child and Adolescent Psychology*, Vol. 39 No. 2, pp. 269-275.
- Rueger, S., Malecki, C., & Demaray, M. (2011). Stability of peer victimization in early adolescence: Effects of timing and duration.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Vol. 49 No. 4, pp. 443-464.
- Schwartz, D., Gorman, A. H., Duong, M. T. & Nakamoto, J.(2008). Peer relationship and academic achievement as interacting predictors of depressive symptoms during middle childhood.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Vol. 117 No. 2, pp. 289-299.
- Ttofi, M. M., Farrington, D. P., Lösel, F., & Loeber, R.(2011). Do the victims of

school bullies tend to become depressed later life? A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of longitudinal studies. *Journal of Aggression, Conflict and Peace Research*, Vol. 3 No. 2, pp. 63-73.

Twenge, J. M., & Nolen-Hoeksema, S.(2002). Age, gender, race, socioeconomic status, and birth cohort differences on the Children's Depression Inventory: A meta-analysis.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Vol. 111 No. 4, pp. 578-588.

Vranceanu, A., S. Hobfoll, S., & Johnson, R.(2007). Child multi-type maltreatment and associated depression and PTSD symptoms: The role of social support and stress. *Child Abuse and Neglect*, Vol. 31 No. 1, pp. 71-84.

ABSTRACTS

The Pathways from Child Abuse and School Bullying to Depression and Aggression in Adolescence : With a Special Focus on Differences in Gender

Chung, Ick-Joong* · Lee, Ji-Yeon*

Child abuse by parents and school bullying by peers are increasingly recognized as serious problems internationally. Depression and aggression have been found to be the most common correlates of child abuse and school bullying. Understanding these processes is important for the development of intervention programs to mitigate both depression and aggress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wo-fold: to assess the effects of problem-solving ability and academic achievement as mediators in the pathways from child abuse and school bullying to depression and aggression; and to assess the differences in gender in the pathways. The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problem-solving ability and academic achievement are partially mediated in the pathways from abuse and bullying to depression and aggression. Second, the differences in gender are confirmed in multi-group analysis. The path coefficients of abuse and bullying to aggression are higher for male students than for female students. In contrast, the path coefficient of bullying to depression is higher for female students than male students.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the most effective interventions will be those which are designed to reflect these differences in gender.

Key Words : abuse, bullying, academic achievement, problem-solving ability, depression, aggression, differences in gender

투고일 : 3월 12일, 심사일 : 5월 4일, 심사완료일 : 5월 11일

* Ewha Womans University